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포르포르타주

사진 및 글: 이상훈

# 자전거는 Style이다

## 제2편

“자전거는 스타일이다”

자전거의 스타일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자전거 스타일을 분석한다.



### <기획의도>

자전거의 문화에 대하여 한국, 일본, 유럽에 대한 문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스타일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과 유럽은 스타일이 아닌 실용성과 기능성에 포커싱이 된 반면에 한국은 스타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다. 위와 같은 문화를 토대로 한국의 스타일의 관점을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일본과 유럽의 자전거 샵은 미니벨로 및 클래식 자전거등 스타일을 강조한 자전거수요가 많지가 않다. 반면 한국은 컬러와 프레임 크기 등 여러 조건을 따져가며, 자전거를 구매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예쁜 자전거를 선호를 한다. 또한 가벼운 작은 자전거를 선호하게 된다. 그 이유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 a. 도난과 스타일

한국의 자전거 문화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도난일 것이다. 특히 한국에선 자전거도난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 이유는 자전거에 대한 시설물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자물쇠를 걸어놓더라도 예쁜 자전거가 있다면 어느새 없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더 외부환경에 자전거를 두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자전거를 들여놓는다는 것이다.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사용자들을 보면 회사내부에 자전거를 들여놓거나 건물내부에 자전거를 배치해둔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도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외부가 아닌 내부로 자전거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난과 스타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 b. Outdoor? Indoor!

밖에 있어야 할 자전거가 실내내부로 들어왔다?. 해외의 자전거 사용자들을 보면 외부에 자전거 주차장에 혹은 인도에 자전거를 놓게 된다. 물론 외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자전거가 들어온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부분은 위에 언급한 도난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림1>



<그림2>

### c. 더 작게? 더 가볍게?

미니벨로 및 클래식 형 자전거가 현재 유행이 아닌 유행처럼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가 아마 집 내부에 들여놓아도 공간을 적게 그리고 간편하게 내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 일본 및 유럽에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내부에 들여놓는다면? 그 공간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로 한국의 자전거 사용자들은 미니벨로와 같은 작은 크기와 휴대 성을 겸비한 자전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을 해 본다.



<그림3-스트라이다>

### c. 한국의 자전거 대중교통?

한국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종종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스트라이다의 자전거처럼 접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니지만 불편한 점은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더 작고 가벼운 자전거를 원하지 않을까?

위와 같은 환경 때문에 해외의 자전거보다 더 작고 가벼운 자전거를 원하며, 미니벨로와 같은 자전거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 d. 한정된 자전거 공간

한국의 자전거 문화에서 언급했듯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은 한국에서 한정적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전거사용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은 레저라는 목적의 자전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 그 한정적인 공간에 여러 자전거 사용자들이 모이게 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자전거라면 실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지만 어쩌다 한번 혹은 어느 시간대에 사용을 하기에 실용성보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니아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패션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 e. 여성 자전거라이더의 증가

자전거가 운동에 좋다는 이유로 여성 자전거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성운전자들은 패션 및 트렌드에 민감하여 기능보다는 자전거의 스타일에 치중을 많이 한다. 자전거를 구매하는 수요자가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스타일이 좋은 자전거가 많이 팔리게 되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스타일 좋은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 역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및 액세서리로서 인식을 한다.

\*한국의 문화 및 환경에 따라 자전거를 선호하는 방향을 다른 관점에서 나만의 견해로 분석을 하였다. 가장 특이 한 부분은 한국은 자전거가 외부가 아닌 내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자전거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 그리고 자전거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자전거관련 시설물이 관리가 잘된다면, 자전거의 스타일도 바뀌게 될까?....